



CHRISTIAN FRIENDS OF KOREA

2020년 가을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Bringing Hope and Heal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the Name of Christ Since 1995*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3

### 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이 북한과 사역 노력들에 큰 영향을 미치다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CFK가 북한 사역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전 같으면 한 해에 몇 번이나 방북하여 사역 해왔던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했던 분이 있을까요? 북한을 방문하고 의미 있는 인도주의적 사역을 지속하며, 필수적인 인도주의 구호 물품들을 그 나라에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난 1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퍼져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시키고 전세계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북한과 저희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이것이 결국 단기적인, 의미심장한 중지였다는 것으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외국인 방문을 금지시키고 입출국하는 모든 항공기 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엄격한 격리 및 예방 조치들은 빠르게 반영되었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월 30일, 북한의 공영 방송인 KCNA는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코로나19를 예방 및 감독하고 국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 본부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역 및 차량 이동 등 거의 모든 국경 횡단이 즉각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아주 적은 양의 코로나19 관련 물품들이나 유엔에서 보낸 인도주의적 물품들이 조금씩 허용되었고 이마저도 큰 어려움과 극심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내 여행 및 이동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주요 공식 행사들도 취소하였으며 리조트, 식당, 학교 및 다른 공식 모임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대중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케이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격리되었고 2,700여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든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달 동안 팬데믹(세계적 범유행) 상황 및 엄격한 국내 코로나19 예방 제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는 유엔과 저희를 포함한 여러 NGO들의 사역을 오랫동안 크게 중단시켰습니다. 1월 이후 북한 내 외국 외교관들과 구호기구 직원들은 평양시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사역을 수행하고 구호 물자를 공급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외교부 및 NGO의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아주 많은 인원의 국제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특수 대피 항공이 3월에 있어 이때 많은 인원이 북한을 빠져나왔고 다른 이들은 육로로 출국하였습니다). 북한 내에 상주하는 유엔 및 NGO의 아주 적은 인원들이 남았고 그들의 일반적인 업무들은 아직도 크게 단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은 사무실들이 계속 그곳에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백신 및 치료제가 2,500만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국경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국경 폐쇄와 무역 및 인도주의적 활동 중단 조치는 지역 경제를 극심하게 수축시켰으며 일반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급격한 폐쇄가 이루어진 시기는 봄 모내기 철로서 원래 이 시기에는 종자, 예비 부속 부품, 플라스틱 시트 및 다른 물품 등 중요한 농경 자재들이 북한으로 수입되는 때였습니다. 이미 운송되고 있었던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들도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여기에는 저희의 선박 운송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박 컨테이너 운송품에는 식량, 닭요, 영양소 개조 작업에 쓰일 자재들 및 다른 구호 물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낸 물품들은 북한의 전염병 예방 본부가 특별 허가를 내려 수입을 허가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선박 운행을 재개하지 않는 한 중국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보낸 운송품에는 결핵 약재를 실은 컨테이너와 주문한 많은 양의 온실, 트랙터, 환자용 고무 매트 및 다른 물자들을 실은 컨테이너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재 중국에 보관되어 수입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쯤 저희는 여러 다른 인도주의적 구호물품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위의 운송품들이 안전하게 전달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여름철 큰 폭우와 태풍 그리고 광범위한 홍수가 더욱더 상황을 지연시키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발병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일어났다면, 두번째 주요한 타격은 이번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한 이례적인 폭우와 광범위한 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매년 한여름이면 한반도에는 큰 폭우가 내립니다. 보통 연 강우량의 절반 정도가 한 달 정도의 "장마철"에 내리게 되는데 이는 6월 말에서 시작하여 7월 중순에 끝나게 됩니다. 비가 온화하게 온다면 산비탈의 식물들과 자연 배수 시설인 개천, 호수, 저수지, 강들이 물을 흡수하고 만약 잉여의 물이 있다면 큰 자연적 훼손 없이 흘러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계속되거나 태풍이 큰 바람을 몰고와 많은 양의 폭우를 짧은 시간 내에 쏟아내게 되면 대지는 빠르게 포화되고 산사태, 광범위한 홍수 및 농작물 피해, 집이나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2020년 장마철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긴 장마철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국경이 이 한반도 중심부를 지나기 때문에 2020년 장마철은 북한과 남한 양쪽 국가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마는 6월 24일에 시작하여 54일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해의 거의 두배가 되는 기간이었으며, 보통 때보다 60%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세 개의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집중적인 폭우 및 거센 바람을 몰고왔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8월 1-6 일 사이에 최소 10개의 군에서 511-854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한달 이상 지속된 비 직후 다시 6일 안에 20-33인치의 비가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넓은 지역에 일어난 심각한 홍수에 대하여 빨리 보도하였고 보고된 지역에는 은파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농경지대인데 홍수로 인해 16,680 가구가 파괴되었고 40,000 헥타르가 넘는 농작지대가 침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 태풍 바비(8월 27일), 마이삭(9월 3일), 하이선(9월 7일)이 북한을 휩쓸고 가면서 홍수 피해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 다리, 가옥 및 다른 건물의 파괴 정도도 매우 컸습니다. 생방송 (북한에서는 일상인)과 나중에 나온 위성 분석에 따르면 황해 남북도, 강원도, 함평남북도의 피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현재 홍수 피해 상황이 지난 연도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 및 사상자 수를 업데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홍수 재해로 크게 피해를 입은 북한 지역 (노란색으로 표시)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예방이 현재 북한 정부의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엄격한 격리 조치 및 여행, 경제적 제한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8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정은의 성명에서 되풀이 되었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강화된 국경 폐쇄와 엄격한 바이러스 방어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며 홍수 피해에 관한 어떠한 것이든 기간에 외부의 지원을 허가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발생한 홍수로 수 백 개의 다리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한반도 중앙 지역은 해안 벼 경작 지대에서부터 저지대 (옥수수, 콩, 과실 나무 및 다른 농작물이 심어진), 그리고 산지대에까지 이릅니다. 가파른 산 비탈길의 물은 작은 개천으로 모여 좁은 계곡으로 흐르게 되고 구불구불한 농경 지대와 마을들 옆으로 흘러 큰 강들로 합쳐져 결국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이전에

홍수 이후 길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피해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기간 내에 이 취약한 지대에 너무 많은 물이 쏟아져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계곡들은 집, 요양소 및 다른 건물들의 가장자리에 닿았고 폭우가 가파른 경사에 쏟아지자 작은 개울들이 급류로 변하여 이내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초목이 고갈된 산지대는 더 빠르게 포화되어 쓸려 내려갔고 아래에 있는 건물들을 진흙탕속으로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고인 물들은 진흙 벽돌로 지어진 건물의 기초를 녹여 급작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골의 흙 길은 빠르게 진흙으로 바뀌었고 표면이 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들은 접합부가 떠내려가거나 콘크리트

판으로 만들어진 길바닥이 물에 잠기자 그 급류의 힘에 의해 접합부가 뒤틀리고 부서지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물에 잠기고 강이 넘치자 주의의 경작지도 범람하였습니다. 옥수수, 콩, 벼를 포함한 농작물들은 수확되기 몇 주 전이었는데, 땅이 물이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거나 센 바람이 농작물들을 접힐 만큼 불면 추수되는 대신 밭에서 썩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북한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북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 홍수의 여파와 그로 인한 애통함을 목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일단 비가 멈추게 되면 그들은 맨손으로 나와 청소를 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가 망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였고 다리가 무너진 지역에는 여러 달 동안 이 지역을 지나는 것이 불가능하여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영양 부족 상태이며 물 공급원의 오염으로 인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식량



2011년 홍수로 인해 파괴된 가옥의 모습

재고와 밭 농작물의 손실, 건물 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코로나19와 2020년 흉수 전 유엔은 거의 40%의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부족"상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새로운 국제 식량 안전 평가 보고서(USDA가 8월에 발표한)는 현재 약 59.8% (1500만3천여명)가 "식량 부족" 상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심지어 코로나19의 발병 상황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달 동안 내부 이동 및 경제적 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격리조치 때문에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국제 물자들의 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5개년 경제 전략의 조기 폐기와 북한의 지도자는 8월 19일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정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예상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장애물들"때문에 "국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목표 달성이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인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예상치 못하고 불가피한 어려움들에 직면한 해"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새로운 5개년 경제 전략 8차 회의에서 논의되기로 하였으나 현재 다시 2021년 1월로 재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제한적인 유엔과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각도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포함하여 풀리지 않은 핵 및 외교적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노이 협상의 실패 후 외교 전선에는 매우 적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CFK는 기도하며 다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한 사역들은 (운송 및 방북을 포함하여) 북한이 운송 서비스를 다시 회복시키고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격리조치로부터 허가하며 항공과 여행을 허가할 때까지 무기한 중지 상태에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저희 본부에서는 사역이 가능해지는 즉시 완전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평범한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무실은 저희 세명의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북을 하거나 운송품을 보낼 수 없을 지라도 법률 준수, 후원자 의사소통, 계획, 행정적 업무, 리서치 및 사역 편성과 같이 반드시 지속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요 현물 파트너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속히 운송 업무가 재개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전례 없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깊은 불확정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최근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책이지만 깊고 솔직한 고뇌가 담겨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혼란과 불확정성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위로를 전해줍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과 애통을 받으시며 응답해주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 응답이 언제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서의 많은 질문들 중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13-14)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현재에도 이러한 약속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수년간 사역해온 모든 병원들과 요양소들의 한사람 한사람, 직원들과 환자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설들은



저희는 결핵 및 간염 요양소에 있는 직원들과 환자들의 현재 상황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2018년 또는 2019년에 일어났던 홍수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그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고 몇몇 시설들은 파괴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 지역들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고 되었는데 현재 저희는 그들이 다시 큰 피해를 입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극심하게 적은 자원들과 그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하여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을 공중위생부의 동료들과 지역 당국자들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일어난 혼란들은 여러 면에서 북한에서 의도치 않았던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이에 겹쳐 홍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삶의 파괴는 영양실조와 가난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결핵 및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통제하고자 했던 오랜 노력들은 치료프로그램과 운송 중지, 의료 훈련의 무기한 연기, 약 공급량의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고 함께 일 해 온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코로나 발병 이전에 정수필터들과 중요한 물자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갈, 일반적 진단 및 치료, 예방 사업의 불가피한 축소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25년간 저희로 하여금 굳건히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후원으로 개조된 결핵 요양소는 매년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움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저희는 컨테이너 15개 분량의 식량, 약제, 위생 키트, 담요 및 다른 구호 물자들을 북한에 있는 CFK 후원 시설들로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는데, 요양소들이 이 물자들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낸 물자들 중 2019년 가을에 결핵 및 간염 요양소들로 보낸 3,500개의 정수 필터 통은 환자들과 그들의 가정에까지 확장 배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것들이 각 장소, 특히 크게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잘 쓰여져서 깨끗하고 안전한 정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과 그 가족들 건강을 지키며 지역 사회를 보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9년 가을에 온실 플라스틱을 많이 주문하여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온실들로 이번 가을에 새로운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것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빠르게 식량 공급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고립된 상황과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지역 당국자들과 요양소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증인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외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이러한 상황을 지날 것을 생각하면 저희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희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으로 그들과 함께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신실하게 후원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든, 깨끗한 물, 영양, 생명을 살리는 약, 의료 훈련, 그리고 많은 것들의 필요는 엄청나고 긴급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필요와 우선순위가 경쟁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실하고 지속적인 따뜻한 파트너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편 저희가 저희의 이해를 넘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17-19



# CHRISTIAN FRIENDS OF KOREA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PO Box 936 • 129 Center Avenue • Black Mountain, NC 28711

phone: (828) 669-2355 • fax: (828) 669-2357

email: cfk@cfk.org • website: www.cfk.org

Like us on: Facebook ( ChristianFriendsOfKorea ) Instagram ( christian.friends.of.korea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도주의적, 교육적, 종교적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고자 1995년도에 설립된 비과세, 비정부기구입니다. CFK에 대한 후원금은 법률이 허용한 정도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https://donate.cfk.org/>

후원하시는 모든 체크에는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또는 "CFK"를 수취인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CFK 사역을 후원하기를 원하시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